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TURKEY



터키

터키땅은 초대교회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끝없는 복음의 열정이 부여된 땅이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던 곳이 바로 이 곳 터키였습니다. 로마시대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일어난 계시록 7대교회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미전도종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국가입니다.

터키민족은 기원전 중국 국경 밖 무리 지어 살던 유목민들이었으나 중국과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곳에 정착한 민족으로서 소아시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늘을 숭상하며 전쟁의 신을 믿고 있던 이들에게 이슬람은 두 개념을 하나로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유일신 사상을 담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일게 됩니다. 이후 유럽 기독교 정치세력과의 십자군전쟁을 통해 이슬람 종교는 순교자들의 희생을 등에 얹고 승고한 비전,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등장은 이슬람 역사의 가장 전성기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의 흔적은 터키민족과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복음을 대항해 원수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운 민족이 바로 터키민족입니다. 현재까지도 터키인에게 이슬람은 그들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터키의 선교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예로, 톨가(Tolga)라는 청년은 잦은 마약과 범죄로 감옥을 드나들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억압을 피해 은밀하게 전도하던 한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는 예수가 궁금해져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크리스찬 잡지를 접하게 되었고, 그 잡지를 구독해 읽으면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슬람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터키 땅에 찾아올 부흥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터키에 이슬람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수도:안카라
 인구:약8,504만명
 주요종족: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주요언어:터키어
 주요종교:이슬람99%,기독교,유대교
 1인당 국민소득: \$9,327

기도제목:

- 1.터키정부가 터키 교회의 헌법상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셔서 무슬림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 2.터키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받는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 3.터키의 믿음의 차세대 리더자들을 세워 주셔서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터키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 4.터키 안에 사는 아랍과 페르시아인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그들의 교회가 터키에 세워지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기도

ERIT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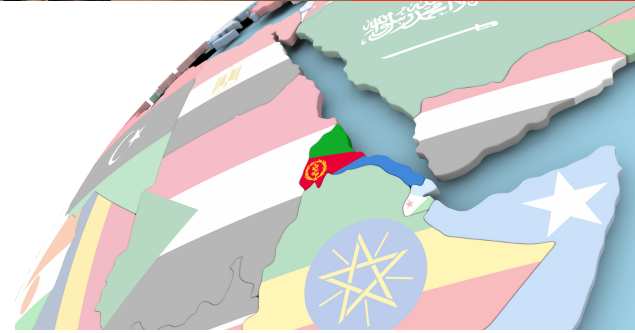


에리트레아

홍해에 있는 에리트레아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정권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매우 비밀스럽고 고립된 국가이므로 어떤 이들은 '은자의 왕국(hermit kingdom)' 북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2002년 이슬람,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금지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단체는 불법이며 정부는 허가된 교회에 대해서도 강단의 메시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의 공산주의와 의무적인 군복무와 경제불황으로 복음주의 신자들을 포함한 많은 에리트레아 국민이 국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2018년 에티오피아와 평화 협정을 맺어 20년간 지속된 전쟁 상태를 종식시켰지만 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석방된 기독교인 수감자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국내외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일하면서 에리트레아 지하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며 비밀리에 모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 지하교회에 침투하여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6년 간, 영향력 있는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 600명가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거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가 없고, 주변의 친지들은 이들이 투옥된 장소도 모르고 심지어 생사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은 정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독실한 죄수들은 가장 엄격하고 먼 교도소로 보내지는데, 빈약한 배급량에, 때로는 사막에 놓인 선박용 컨테이너에 갇혀 극한 환경에서 몇 년을 지내기도 합니다. 성경도 정부가 판매된 성경을 추적하므로 구입할 시 밀반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 신앙을 갖게되면 목숨과 맞바꾸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숨은 종들을 통해 에리트레아의 남은 무슬림들이 주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수도:아스마라
 인구:약597만명
 주요종족:티그리냐족, 티그레족, 사호족 외
 주요언어:티그리냐어, 영어, 아랍어
 주요종교:기독교48%,이슬람47%,기타 3%
 1인당 국민소득: \$343

기도제목:

1. 거짓에 속아 굳게 닫혀진 에리트레아 무슬림들의 마음이 속히 열리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2. 에리트레아 교회 리더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좋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소서. 그래서 정부의 교회 억압정책이 사라지게 하셔서,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육을 보호하소서. 저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이 주를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RAZAKHSTAN



카자흐스탄

'정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남한의 26배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문화와 종교, 예술, 상품이 교류되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였고 지금도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130여 개의 민족들이 함께 터를 두고 있는 땅입니다. 1930년대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던 이란, 타타르, 체첸, 잉귀시 등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이 척박한 황무지였던 카자흐스탄에 버려지게 되었고, 고려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때 카작민족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추위를 피할 곳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도움을 내밀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의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자신들이 먹을 빵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카작 내의 많은 민족들이 카작인들을 은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카작민족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약 1300여년간 복음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카작인의 대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으며 샤머니즘 사상이 혼합된 민속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의 무슬림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교회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로만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작년 라마단 때 알라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크리스찬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 한 교회를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앉아 교인들과 어떤 논쟁을 벌일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로만은 더 이상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다시는 이슬람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번 라마단 기간에도 로만형제와 같은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카자흐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도:아스타나
 인구:약1,795만명
 주요종족:카즈흐인, 러시아인
 주요언어:러시아어, 카자흐어
 주요종교:이슬람70%,러시아정교23%, 개신교2%
 1인당 국민소득: \$11,488

기도제목:

- 1.카자흐스탄 대통령(KASSYM-JOMART TOKAYEV)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1300년간의 이슬람이 지도자들을 통해 무너지게 하소서.
- 2.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카자흐스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슬림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 3.카자흐스탄 크리스찬들이 많은 억압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성령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 4.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기술과 지혜를 교회들에게 허락하셔서 전도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MOROCCO



모로코

‘해가 지는 서쪽’이라는 뜻을 가진 모로코는 4세기경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였지만 7C 경 이슬람 군의 침입으로 인해 예배당이 허물어지면서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그로 인해 99%의 수니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로코는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온건 노선을 취하며, 이슬람권 중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6일 카사블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 폭탄 테러는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대 테러법을 제정하고 사회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2007년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일어난 자살 폭탄테러 충격으로 더욱 이슬람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는 매일 다섯 번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새 방송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일한 복음의 통로였던 TV와 인터넷을 제한하고 각 채널에 매일 57분 이슬람 방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단 하루 만에 약 30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였고, 이어 미국에서 제작된 반이슬람 영화로 인한 대규모의 반미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0년에는 128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당하면서 모로코 선교 역사가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나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은 핍박을 피해 도시 지역이 아닌 산악 지역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층은 증가하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넘어 유럽 드림을 꿈꾸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종교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해서 전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선교사 추방으로 인해 현지 기독교인들을 더욱 굳건히 세우셨고 그들이 몸을 숨겼던 아틀라스 산맥의 산간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와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로코 민족이 될 때까지 기도로 중보합니다.



수도:라바트

인구:약3,332만명

주요종족:아랍인, 베르베르인, 기타

주요언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주요종교:이슬람98.1%,기독교 1.1%

1인당 국민소득: \$3,046

기도제목:

- 1.모로코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슬람정책이 무너지고, 그땅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 2.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로코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소서. 서로 한마음으로 주의 몸을 세워 모로코 복음화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 3.주를 믿는 자들이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 4.모로코의 빈곤층들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을 통해 보고 알게 하시어, 복음을 받고 주의 자녀 되어 참 심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YEMEN



예멘

'행복한 아라비아'로 불렸던 예멘은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땅이며 수도 사나(Sana'a)는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예멘은 우리와 같이 20세기에 남예멘의 사회주의와 북예멘의 자유민주주의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자스민 혁명은 예멘을 휩쓸었고 33년의 살레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남북간의 내전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부족 간의 세력다툼, 수니파-시아파의 갈등과 최근 IS를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까지 더해져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19.5세이고, 25세 이하 인구가 전 국민의 61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내전으로 인해 작년 경제성장률이 0.08%에 멈추어 아랍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합니다.

예멘은 돈을 받고 어린 소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조혼이 잦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가 설사 교육을 받는다 해도 좋은 직장은 구하기도 힘들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목돈을 받고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도 역시 이슬람에서 개종한 자들에게는 사형까지 이르는 억압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예멘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들이 직접 거리로 나아가 이슬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는자들의 수는 작으나 그들만의 방법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현재 대부분의 예멘지역에는 적어도 한명의 크리스찬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기위해 여러 선교단체가 세운 예멘 네트워크를 통해 저들에게 성경을 비밀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의 손이 예멘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수도:사나
인구:약3,049만명
주요종족:아랍인
주요언어:아랍어
주요종교:이슬람99% (수니,시아파),기독교1%

기도제목:

1. 모로코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슬람정책이 무너지고, 그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의 나라 되게 하소서.
2. 어려운 경제와 정치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멘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돌봐주소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안정을 허락 하소서.
3. 미디어를 통해 복음사역과 제자양육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로 서게 하소서.
4.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소서. 어느곳에 있든지 주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IRAN



이란

'이란은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택함을 받고 쓰임 받은 민족입니다. 고레스 왕을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의 통로가 되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예레미야 49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당시 이방인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는 이란인이었으며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제자 도마, 다대오,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순교하였습니다. 350개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부흥이 있었으나 복음의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해 결국 7세기 이슬람의 침략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 이란은 시아이슬람의 종주국으로 굳게 닫힌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열강들에게 치이고 주변국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란, 마지막 왕조가 멸망하고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은 잠시 희망에 부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이슬람 독재와 절망적인 경제상황이 되면서 이란인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공허함이 찾아왔고 마지막 시대 복음이 다시 이란에 증거되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이름만 무슬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크리스찬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여 세워진 가정교회가 증폭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란의 교회들을 먼저 세우셔서 주위 나라들의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선교사들을 세우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주께서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란의 믿음의 군대가 예비하며 나아갈 것을 믿으며 이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란의 무슬림 종교 지도자이며 교수인 하메드는 어느날 한 크리스찬 방송 웹사이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복음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메드는 혼자 비밀리에 주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나는 표현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그 후 나는 성경과 온라인 주석을 찾아 보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여러 핍박으로 인해 내가 크리스찬인임을 숨기고 있지만 저들이 내게 할 수 있는것은 나를 죽이는 것 뿐이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저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란혁명책 옆에 놓여진 적색 신약성경)



수도:테헤란

인구:약8,28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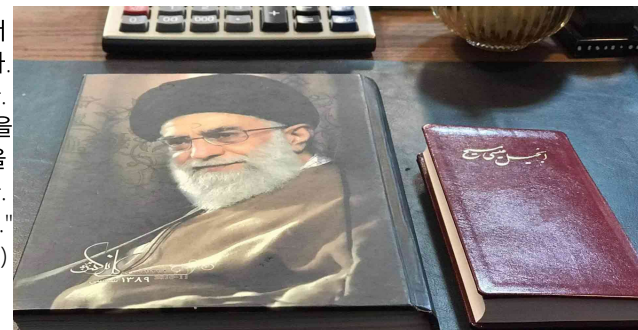
주요종족:페르시아족,아제르바이잔족,
길락-마단다란족, 쿠르드족, 아랍족,
루르족, 발루치족,투르크족, 기타

주요언어:페르시아어

주요종교:이슬람97%

기도제목:

- 1.이란 무슬림들이 진리에 더욱 갈급하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저들이 속히 알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2.이란의 가정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소서. 핍박과 어려움속에서도 더 큰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교회를 통해 이란의 길 잃은 무슬림들이 주를 만나 돌아오게 하소서.
- 3.이란내의 성경 인쇄와 성경 디지털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HUI



회족

회족은 당나라 때 아랍과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상인들과 원나라 때 용병으로 온 무슬림 군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한족과의 통혼으로 외모는 한족화되었고, 회족 고유의 언어가 없이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회족은 자신들의 신념과 관습에 있어 무슬림으로서의 신분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물론 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점차 이슬람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물으면 모두 이슬람이라고 대답하고 '모든 회족은 반드시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라며 여전히 이슬람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회족인들은 금식을 하며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정작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은 없습니다. 그저 이런 행위를 통해 많은 죄를 조금이라도 삭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질 뿐입니다.

2018년 2월, 새로운 종교 사무 조례 발표 이후, 정부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종교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고, 비지니스들이 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세속화로 인해 이슬람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에 나와 일하는 청년 세대와, 고등 교육을 받고 눈이 뜨인 대학생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한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회족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게 된 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교제가 힘들기도 하지만, 대학생들과 젊은부부 가정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회족의 조상들은 코란을 들고 아랍과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왔지만, 이제는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회족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 시대에 강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중국 회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치구 성도:영하회족자치구
 인구:약1,300만명
 주요종족:아랍
 주요언어:중국어
 주요종교:이슬람

기도제목:

- 1.정부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수록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는 회족들의 영혼들이 라마단 기간을 통해 생명되신 예수를 만나 회복되게 하소서.
- 2.주의 동역자들을 세워 보내 주소서. 회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동역자, 말씀 양육자, 섬김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회족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소서.
- 3.회족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젊은세대가 부흥하게 하시어 회족과 중국과 열방의 선교사로 부름받게 하소서.

